세련·간결·복고…테니스룩이 뜬다



테니스를 모티브로 한 LF '질바이질스튜어트'의 '슈즈 라인' 사진제공 | LF

LF 헤지스 '윔블던 라인' 판매 폭주
휠라도 다양한 테니스 라인업 선봬
다양한 스타일 응용도 인기에 한몫

패션

패션업계 새 아이콘으로 '테니스'가 뜨고 있다. 테니스 스타일이 신발은 물론 스포츠의류로 확산되고 있는 것.

그 시작은 LF '헤지스'에서 파생됐다. 2016~2018년 영국 '윔블던 챔피언십'과 공식 계약을 맺고 '윔블던 라인' 카라 티셔츠 및 셔츠를 출시한 것. 윔블던 로고와 함께 테니스공·라켓·트로피를 위트 있는 패턴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 판매율이 90%에 육박하는 등 폭발적인 판매반응을 기록하며 '헤지스' 대표 라인으로 자리잡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올 시즌에는 '질바이질스튜어트'의 '슈즈 라인'으로 이어졌다. 최근 스포티즘이 강세인 만큼 테니스를 모티브로 한 스니커즈 라인을 전개한다는 게 회사 측 방침이다.

휠라도 예외가 아니다. 테니스에서 영감을 얻은 '코트 디럭스' 슈즈가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5개월 간 약 15만 족 판매고를 기록하며 핫 아이템으로 등극한 이래, 단순 슈즈에 머무르지 않고 의류 카테고리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최근 내놓은 2017년 봄·여름 시즌 '테니스 컬렉션'이 대표 상품. 기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심플하고 스타일시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여기에 언더웨어 브랜드 휠라 인티모 역시 모델 한혜진과 함께한 테니스 모티브 화보를 공개하며 휠라에게 '테니스 종결자'라는 별칭을 선사했다. 이밖에도 이랜드 뉴발란스는 1979년 출시된 'CRT300'을 재해석한 클래식 코트화 'CRT300VW'를 선보였으며, 리복 역시 1985년 등장했던 테니스 코트화 '클럽C'를 새롭게 해석한 '클럽C 익스클루시브'를 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통업계도 '테니스 광풍'에 발맞추는 추세다. 롯데백화점이 16일까지 전국 33개 점포에서 실시하는 '코트화 페어'가 대표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코트화가 전체 스포츠화 매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게 롯데백화점 측 설명이다.

그렇다면 테니스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른 이유는 뭘까. 우선 패션업계 전반에 불어닥친 스포티즘 열풍이 한몫한 배경에서, 서양에서 귀족 스포츠로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테니스의 특성상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를 어필하기 용이하다는 점이 꼽힌다.

여기에 복고 열풍도 가세했다. 과거 유행했던 테니스 코트화를 모티브로 업그레이드 버전을 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과거에 즐겼던 문화의 흔적을 되새김질하고 이를 통해 잊었던 과거의 감성과 꿈을 반추하는 경험을 하는 복고 트렌드와 맥을 함께한다. 즉 테니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함께 최신 트렌드인 스포티즘과 복고 감성에 안성맞춤이라는 분석과 함께, 귀족 스포츠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내세우면서도 정통 캐주얼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디자인으로의 변형도 쉽다는 게 패션 관계자들의 한 목소리다. 휠라 측은 "복고 무드와 연계한 테니스 트렌드가 세계적인 유행 흐름을 탄 가운데, 특유의 간결함과 세련된 이미지를 가진 '테니스룩'은 스포츠는 물론 캐주얼·스마트 비즈니스 등 다양한 스타일로 응용할 수 있어 높은 활용도 면에서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공유와 제주도 봄의 만남 공유가 '슬로우 라이프'를 공개했다. 모델로 활약 중인 코오롱 '에피그램' 2017 봄·여름 화보를 통해서다. 화보에서 공유는 '제주에 머물다, 공유의 슬로우 라이프'라는 콘셉트로, 아름다운 제주의 풍경과 함께 그가 가진 특유의 감성과 '에피그램'의 부드러운 색상·여유로운 실루엣·감성적 디테일이 어우러진 이미지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코오롱

2017 F/W 헤라서울패션위크, DDP서 27일 개최

2017 가을·겨울 헤라서울패션위크가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27일 오후 7시 DDP 둘레길에서 열리는 오프닝 패션쇼를 시작으로 국내 65개 디자이너 브랜드와 코오롱 등 6개 기업이 참가하는 패션쇼가 진행된다. 전용 스마트폰 앱을 출시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 또 패션 업체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라인프렌즈·할리스커피 등도 행사에 참여해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패션쇼 외에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 패션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는 '패션 필름 페스티벌', 유명인의 애장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정구호 서울패션위크 총감독은 "서울패션위크는 패션을 모티브로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패션문화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타 패션위크와 차이가 있다"며 "패션업계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과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2017 가을·겨울 헤라서울패션위크 포스터

스파오, 합리적 가격 '베이직 수트' 선봬



이랜드 SPA 브랜드 '스파오'가 '베이직 수트(사진)'를 내놓았다. 면접 시즌을 준비함은 물론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한 착용감까지 겸비했다. 스판 소재를 함유한 고급 원단으로 재단해 오래 입어도 활동이 편하며, 입체패턴 설계로 몸매까지 보정해 깔끔한 핏이 특징이다. 봄·가을용 베이직 수트와 하절기용 서머 수트 2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재킷 12만9900원·바지 4만9900원, 상하세트 17만9800원.

정정욱 기자

■ 인사

피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전출 ▲공정거래위원회 김성환 ◇국장급 전보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김형배

■ 부고

▲조상원씨 별세, 조병진(만텍 상무)·병인(한국거래소 코넥스상장관리팀장)씨 부친상=13일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 발인 15일 오전 10시 (02)3410-3151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2		8		5	
8		6		3		9		
	4			9			2	
7				1				3
	6	1	3		9	8	7	
9				8				2
	1			2			3	
		7		6		2		1
	5		8		1			

	2		4				8	
7				2	1			4
		8	7			6		
9		4		6			7	
	8		3		7		9	
	3			9		2		8
		2			3	9		
5			9	1				2
	9				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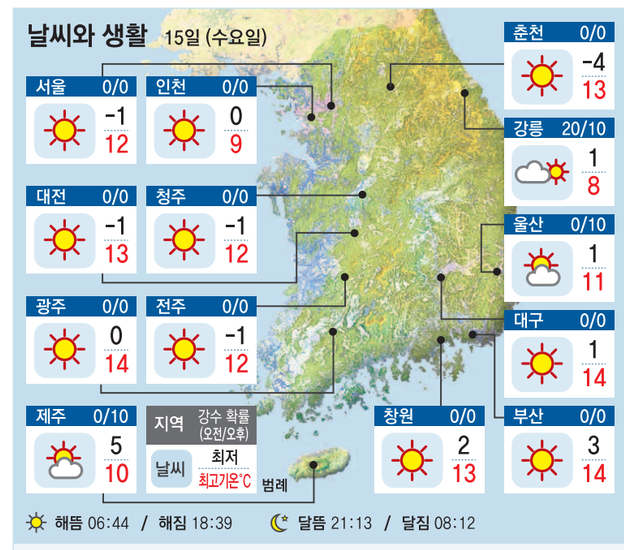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도쿠.kr

3	5	2	8	7	1	4	6	9
4	9	7	5	6	3	2	8	1
6	1	8	9	2	4	7	3	5
9	3	4	7	8	6	5	1	2
2	6	1	3	5	9	8	7	4
7	8	5	4	1	2	6	9	3
5	4	3	6	9	7	1	2	8
8	2	6	1	3	5	9	4	7
1	7	9	2	4	8	3	5	6

3	9	1	5	8	2	4	6	7
5	7	6	9	1	4	8	3	2
8	4	2	6	7	3	9	1	5
6	3	7	1	9	5	2	4	8
2	8	5	3	4	7	1	9	6
9	1	4	2	6	8	5	7	3
4	5	8	7	3	9	6	2	1
7	6	9	8	2	1	3	5	4
1	2	3	4	5	6	7	8	9

날씨와 생활 15일 (수요일)



해뜸 06:44 / 해짐 18:39 달뜸 21:13 / 달짐 08:12

산 날씨

북한산	☀	-1/12
설악산	⛅	2/8
오대산	☀	-4/10
계룡산	☀	-3/12
속리산	☀	-5/12
소백산	☀	-3/11
팔공산	☀	1/13
지리산	☀	-1/14
덕유산	☀	-5/11
내장산	☀	-2/11
한라산	⛅	-2/5

바다 날씨

인천송도	☀	0/9
제부도	☀	-2/10
경포대	⛅	1/8
속초	⛅	2/9
대천	☀	-1/10
안면도 꽃지	☀	0/9
변산반도	☀	-1/10
거문도	☀	2/12
칠포	☀	4/10
해운대	☀	3/14
제주도	⛅	5/10

미세 먼지

서울	51	보통
부산	44	보통
대구	41	보통
인천	52	보통
광주	53	보통
대전	63	보통
울산	40	보통
경기	64	보통
강원	58	보통
충북	61	보통
경남	50	보통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6일(목) 서울경기 ☀ 0/12 영동 ⛅ 1/13 충청 ☀ -1/13 호남 ☀ 0/14 영남 ☀ 5/14 제주 ⛅ 5/11
17일(금) 서울경기 ⛅ 1/13 영동 ⛅ 4/14 충청 ⛅ 0/15 호남 ⛅ 0/16 영남 ⛅ 6/16 제주 ☁ 6/13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15일(수요일) 음력:2월 18일

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성실히 자기의 기반을 닦을 때이다. 능력 이상으로 일을 벌이면 실패하기 쉽다. 현재는 어렵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길방:동
소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육체적으로는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나 정신적으로는 활발하다. 길방:서
호랑이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일, 거래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미혼자는 혼담이 성사되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길방:북
토끼 행운색:검정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전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오늘은 주위환경의 변화로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성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는 날이다. 길방:북
용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무지개, 소망 많다. 운세: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운이다. 새로운 일을 시작 할 때는 충분히 앞날을 고려하여야 한다. 많은 노력과 정성과 활동이 필요하다. 가정은 평화가 중요하다. 길방:서
뱀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노을, 인생무상. 운세: 잠시 물러서서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할 때이다. 욕심을 부리면 결과가 좋지 않다. 외로워지며 벌여놓은 일들은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의 날이다. 길방:중앙
말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소원하는 일이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겠으나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성취 되겠다. 우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할 것이며, 복잡한 인간관계도 청산하라. 길방:동
양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갈등. 운세: 오늘은 집수리나 이사 그리고 혼인 등 좋은 행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관련 일도 연기함이 좋겠다. 좋은 운과 나쁜 운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기다려야 한다. 길방:서
원숭이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산기슭에 연못이 있고, 그 연못을 낮춤으로써 산은 보다 높아지는 것이다. 현재는 어렵지만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길방:중앙
닭 행운색:노랑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은 어려우나 결과는 좋다. 길방:중앙
개 행운색:흰색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나의 운기가 쇠해서 시류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재빨리 물러나는 것이 최상의 방도이다. 마음은 있어도 생각과 몸이 따르지 않는다. 취침 시 베개는 서남방이 좋다. 길방:서
돼지 행운색:청색	오늘의 마음:여우비, 겨우 해결. 운세: 지금은 얼마든지 일을 맡아도 순조롭게 해나갈 수 있는 때이다. 일하면 할수록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큰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다. 길방:서
재운코너	**금주의 로또 행운번호: 1,4,6,9,(2,0)** **금일 복권, 주식, 부동산 매입 행운의 띠:호랑이, 말, 개**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토끼, 양, 돼지**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언 | 편집인 이성춘 | 편집국장 연제호 | 광고국장 이승욱 | 인쇄 동아일보사

대표전화 02 2020 0114 | 편집부 02 2020 1032 | 스포츠1부 02 2020 1041 | 스포츠2부 02 2020 1059 |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5 | 경제부 02 2020 1062 | 뉴미디어전략팀 02 2020 1027 | 사진부 02 2020 1069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 2020 1040 sol@donga.com

www.sportsdonga.com
(우)03187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